

[사회]

의사 사칭 음란전화 '주의'

전남대병원에 4~5건 신고
지난해도 비슷한 사건 발생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하며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부녀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질문을 하는 법인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18일 전남대병원에서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9시40분께 40대 후반의 주부에게 자신을 병원 산부인과 S교수라고 사칭한 남자가 전화를 걸었다. 이 남자는 방송출연에 앞서 자료확보를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부관계 횡수·속옷 색깔·성관계 시 체위 등 음란한 질문을 계속 던졌다.

전화를 받은 주부는 불쾌했지만 남자의 정중한 말투와 해박한 의학지식에 속아 무려 1시간20분 동안 답변을 했다. 하지만 주부가 몇 분 뒤 전남대병원에 문의를 하자 S교수는 "설문조사를 한 적 없다"며 필적 뒤였다. 누군가가 S교

수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4~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홈페이지에 '교수 사칭 전화 설문조사 관련 안내문'을 게재하고, 전화가 걸려오면 경찰이나 병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병원은 또 내부 전선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유사 피해를 주의하라고 통보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현재 동부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J병원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하며 주부들에게 음란한 전화를 걸었던 것. 경찰은 당시 박모(40·화순군 화순읍)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지명수배를 내렸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

전남대병원은 수법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미뤄, 박씨가 최근 주부들에게 다시 전화를 건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주형기자 jhim@

광주·전남 지난해 노사분규 33% 줄었는데... 근로손실은 되레 69% 급증

대기업 장기 분규 탓...올해 공공부문 갈등 늘 듯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해 실제 경제적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는 공공부문의 갈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06년 분석=18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노사분규 건수는 12건(광주 5건·전남 7건)으로 지난 2005년 18건에 비해 33% 감소했다.

하지만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3만243일(광주 8천432일·전남 2만1천811일)로 전년(1만7천845일)보다 69.4% 증가했다. 전국 평균 근로손실일수 증가율 41.5%(84만7천697일→119만9천767일)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특히 올해 '민주노총 광주·전남부가'가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를 분리되

면서 여수와 광양 등 노동계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파업 등 쟁의행위로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비정규직과 화물·덤프 운전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권익 요구도 증가하고, 한·미 FTA 협상 등으로 인한 갈등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올해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268개소 중 임금교섭이 타결된 곳은 89.9%(241개소)에 달했다. 임금 인상률은 광주가 5.5%, 전남이 4.9%로 전국 평균인 4.8%보다 약간 높았다. /임주형기자 jhim@kwangju.co.kr

◇2007년 노동운동 전망=노동청은 올해 조직역량을 확대하려는 지역 노조가 쟁의행위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노조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노사갈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 '민주노총 광주·전남부가'가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를 분리되

면서 여수와 광양 등 노동계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파업 등 쟁의행위로 빈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비정규직과 화물·덤프 운전자 등 특수형태 근로자의 권익 요구도 증가하고, 한·미 FTA 협상 등으로 인한 갈등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올해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 268개소 중 임금교섭이 타결된 곳은 89.9%(241개소)에 달했다. 임금 인상률은 광주가 5.5%, 전남이 4.9%로 전국 평균인 4.8%보다 약간 높았다. /임주형기자 jhim@kwangju.co.kr

▲근로손실일수=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회사 측의 실제 경제적 피해를 수치화 한 것. 분규 참가자 수와 파업 기간을 곱한 값을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조합원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분규가 발생하면 크게 증가한다.

비닷빛 하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1월 19일
(음 12월 1일)
◇전국날씨

광주	맑음	-3~10℃
부산	맑음	-2~9℃
대구	맑음	-1~9℃
대전	맑음	-2~10℃
전주	맑음	-5~10℃
서울	맑음	-6~10℃
인천	맑음	-3~10℃
안동	맑음	-6~11℃
울릉도	맑음	-3~9℃
독도	맑음	-4~10℃
제주	맑음	-7~8℃
목포	맑음	-4~7℃

서해남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서~북동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 01:45 썰물 < 07:18
여수 밀물 < 09:35 썰물 < 02:56

▲해돋이 07:39 ▲해질 17:47 ▲달출 07:52 ▲달몰 17:4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날씨						
최저/최고	-2/8	0/6	-2/7	-2/7	-1/7	-2/6

병원 비만치료 3명 중 1명 부작용

병·의원에서 비만치료를 받은 사람 3명 중 한 명은 요요현상과 약물 독성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10월 비만관리 경험이 있는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18일 밝혔다.

비만관리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425명(복수응답자는 별도 계산) 중 다이어트 식품을 이용한 사람이 195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병·의원 122명(28.7%), 피부관리실 108명(25.4%)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은 5명 중 한 명 꼴인 79명(18.6%)이었는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비만관리 방법은 병·의원 이용으로 전체 122명 중 30.3%인 37명이 부작용을 겪었다.

부작용 유형(복수응답 허용)으로는 요요현상이 전체 104건 중 절반이 넘는 51.9%(54건)를 차지했고 우울증·불쾌감 16.3%(29건), 구토·설사 13.5%(14건), 피부발진 4.8%(5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소비자들이 비만관리를 위해 쓰는 돈은 평균 167만원. 다이어트식품 섭취가 20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체형관리실 이용 178만원, 양방 의원 161만원, 한방의원 104만원 등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국내 첫 '담배 소송' 선고 25일로 연기

폐암 환자와 가족들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의 '담배소송' 선고가 1주일 뒤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1명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병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김모씨 등 5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담배

소송 2건의 선고를 2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1명이 1999년 12월 "30년 이상의 흡연으로 폐암이 유발됐으며 KT&G와 국가가 흡연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3억7000만원의 배상을, 김모씨 등 5명은 1억원의 배상을 각각 요구하면서 시작된 담배소송은 원·피고 측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지며 7년 넘게 진행됐다. /연합뉴스



18일 광주시 광산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에서 열린 외국인근로자·새터민·국제결혼 자녀를 위한 '새날학교' 개교식. '좋은교사 광주전남모임' 회원 등 자원봉사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별로 '맞춤식' 교육을 실시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주여성·새터민 자녀 위한 '새날학교' 개교

국제결혼 자녀와 새터민 자녀를 위한 '새날학교'가 18일 광주에서 문을 열었다.

광주시 광산구 평동 광산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에 개교한 '새날학교'의 첫 입학생은 국제결혼 부부·이주 노동자·새터민 자녀 등 7~18세 사이의 학생별 '맞춤식' 수업을 한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이 학교

는 "좋은교사 광주전남모임" 회원 300여 명과 광주 이주여성지원센터 등 5개 시민단체의 후원금과 자원봉사로 운영된다. 학교 측은 중국·러시아·몽골·태국·베트남 등 각국어 교사와 교과목 전담 교사를 비롯한 29명의 교직원을 배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별 '맞춤식' 수업을 한다.

(11)군은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게 돼 너무 떨리고 기쁘다"며 "빨리 한국어를 배워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다"고 활짝 웃었다.

이천영(48)의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소장은 "앞으로 학생 수를 20명까지 늘리고, 정식으로 대안학교 인가를 받는 것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승혜기자 lsb54@kwangju.co.kr

국민 16명 중 1명은 대학생

25년만에 4.7배 늘어

우리나라 대학생 수가 1980년 이후 25년 만에 약 4.7배 늘어났으며 국민 16명당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05년 전국 360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292만6천622명으로 1980년(62만4천753명)보다 230여만 명 증가했다.

대학생 수는 2005년(4천728만 8천951명) 국민 16명당 1명꼴로 1980년(3천743만6천315명) 인구 60명당 1명꼴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2005년 대학 졸업생 26만8천833명 중 15만 4천542명만이 일자리를 구하고 2만8천652명이 대학원에 진학했으나 7만7천822명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됐다. /연합뉴스

2007년 신재생에너지지열시스템 국가 보조 사업 안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관리공약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급사업 안내

1. 지원대상 사업
2. 지원 대상
3. 지원금
4. 신청방법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청서 작성방법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청서 작성방법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청서 작성방법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청서 작성방법

IBT토플 중123 영어영재반 대모집

확원선택! 정확해야 후회없습니다.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토익총점 830 이상 영어영재반

조성훈 부원장 전격 초빙!

동아외국어학원

메가퍼스트학원

062) 222-6253